

성대결절이 있는 서양음악을 전공한 성악도의 발성에 대한 음성분석학적 특징

진성민, 김대영*, 이경철, 이용배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이비인후과

목적 : 성대결절이 있는 서양음악을 전공한 성악도들의 발성시 음향학적 특징과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음악대학교 성악과에서 소프라노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음성장애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없으면서 성대화상술 검사상 성대결절이 확인된 18세부터 25세 사이의 여학생 10명을 대상군으로 하고, 성대결절이 없는 성악도 20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평소 발성상의 문제점과 연주시의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와 음성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 대상군과 대조군에서 대화시 및 발성시 /a/ 발성에 대한 음향분석학적 비교에서 Fo, jitter, shimmer, NHR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전기성문파측정법에서도 closed quotient 및 speed quotient에서 양군의 의미있는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설문지 조사상 성대결절이 있는 성악도들은 쉽게 목이 피로해지고(70%), 장시간의 대화나 연주시 발성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60%) 등을 성대결절이 없는 성악도들에 비하여 빈번하게 호소하였다.

결론 : 오랜 기간 동안 서양음악에 대한 발성교육을 받은 성악도들은 단기간 발성에 의한 음향학적 소견이나 성대 진동효율에서 성대결절의 유무에 따른 차이점은 없으나, 성대결절이 있는 성악도의 경우 주로 장기간의 연주나 대화시에 문제점을 호소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대결절이 있는 성악도들에서 연주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성악지도 교사나 이비인후과 의사는 성대결절에 대한 치료 및 음성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